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03	01. 10	01. 17
대표 기도	정용현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성경 봉독	정용현 집사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입니다.
 2. 성경 읽기-올해는 성경읽기 표를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 1월 3일(첫 주일)은 14시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신년예배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55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벵전 2 : 1-5 (신p378) 이상호 목사
(2. Petrus 2:1~5)
- 설 교 Predigt 하나님을 맞보아 알라!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55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일상의 보물 찾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는 “일상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요! 저는 또한 이것을 “일상의 보물 찾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때로는 권태롭고 자중하며 절망스러운 일상 속에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물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둘 찾기 시작하면 그 보물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눈을 뜨고 나면 온 천지가 보물섬이 되어 버립니다.

어느 교회 앞 홍보판에 이런 재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가 그분을 옮겨 놓았는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마음의 눈이 먼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영적 감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비밀 햇빛처럼 늘 우리를 비추십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햇빛이 지구를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람 한 점 없어도 사실 미풍이 불고 있듯이 하나님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비밀 햇빛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함, 미풍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만 있다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 김영봉 목사
(와싱턴 사림의 교회 담임)

*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 사는 삶으로 가는 문이다. - Andrew Murray(남아프리카 공화국 목사) -